

중국산 미백 화장품 수은함량 초과

허용 기준치 최대 1만5000배 넘어 ...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 과다

1월17일 한국소비자원이 21개 수입 미백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3개 화장품에서 허용 기준치의 최대 1만5000배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수은 허용 기준치는 1ppm 이하이다.

중국산 미백화장품인 <Vison> 크림에서 수은이 1만5698ppm, <Qu ban gao>는 120-5212ppm 검출됐으며, 제조국조차 불분명한 <Melanin Treatment>는 574ppm의 수은이 들어 있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에 사용됐으나 신경독성이 강해 화장품 원료로 금지됐으며, 완제품은 수은 함량을 1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수입된 겔 타입 치아미백제 분석에서도 10개 중 2개의 치아미백제가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중국산 <화이트닝 펜>과 미국산 <Listerine Whitening Pen>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각각 10.3%와 4.4%에 달해 국내 치아미백제 기준인 3%를 넘어섰다.

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온라인 유통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7>